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

오늘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22돐이 되는 날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7(1998)년 4월 18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에서 먼저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고 나라의 통일위업에 쌓으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또한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조국통일위업은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위업이라는 것을 명시하시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들을 제시하시었다.

불후의 고전적로작에는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리고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해내의 온 민족의 대량과 접촉, 대화와 련대연합을 널리

실현할데 대한 민족대단결5대 방침이 천명되어있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원칙적문제를 뚜렷이 명시되어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은 온 겨레를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으로 힘있게 추동하는 고무적기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단결의 기초와 리념, 그 실현을 위한 파업과 방도들을 밝힌것으로 하여 발표되자마자 내외의 열렬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해내외의 우리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을 민족대단결의 휘황한 진로를 밝힌 강령적지침으로 높이 찬양하면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섰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북, 남, 해외 3자의 련대연합이 한층 강화되는 속에 지난 기간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온 민족이 함께 하는 거족적운동으로 확대발전하였다. 오늘 우리 겨레앞에는 내

외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자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령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의 령장에 철저히 설 때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그 누구도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또 가져다줄수도 없다. 모든 문제에서 민족의 의사와 리익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외부의 어떤 압력과 공갈에도 굴함없이 자주적대외 민족우선, 민족옹호의 원칙을 확고히 세워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사대매국적인 외세와의 공조책동을 반대하여 결연히 투쟁하여야 한다.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쳐 통일의 주체를 강화하는 여기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근본담보가 있다.

온 겨레는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온 민족은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전쟁책동을 단결된 힘으로 짓부셔버리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보조를 같이하며 련대연합하여 공동행동을 벌려나가기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짓부셔 버리고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거머쥐 성취하고야말 것이다.

김장호

파쇼 《정권》을 무너뜨린 4월인민봉기

외세의 식민지 파쇼통치가 빛이 내 모든 사회악과 극심한 생활고에 더는 참을수 없게 된 남조선인민들은 1960년에 들어와 외세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항의투쟁에 떨쳐나섰다. 그 도화선으로 된것은 리승만독재 《정권》이 파쇼책대를 연장하기 위해 감행한 3.15부정선거였다. 1960년 3월 15일 리승만은 온갖 테러와 협잡을 감행하여 자기의 《대통령 4선》과 리기봉의 《부대통령 당선》을 날조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쌓여온 분노를 폭발시켰다. 투쟁의 불길은 마산에서부터 타올랐다. 협잡선거의 더러운 장면을 목격하고 격분을 참지 못한 경상남도 마산의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은 《협잡선거 물리치고 공명선거 실시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투쟁에 떨쳐나섰다. 삼일적인 군중이 총탄과 최루탄을 마구 발사하는 속에서도 투쟁은 날로 더욱 확대되어갔다.

4월 11일 마산앞바다에서 최루탄에 맞아 무참히 학살된 김주열학생의 시체가 발견된것을 발단으로 제2차 마산봉기가 일어나고 여기에 수만명의 군중이 참가하였다. 마산봉기는 곧 서울과 남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하여

조선의 기타 도시들에도 파급되어 전인민적인 봉기로 발전하였다.

4월 18일 4 500여명의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학교마당에 모여 집회를 가지고 남조선 100만학도의 총열기를 호소하였다. 그들은 호소문에서 《불의와 부정에 반기를 드는 공동성을 지닌 우리들 학도는 이이상 머물러 있을수 있겠는가. 자유, 정의, 진리를 신봉하는 우리들 100만학도는 일어서자. 력사가 우리에게 준 사명을 완수할 시기는 온것이다. 힘을 모아 민주리전 투쟁자.》고 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도 수천명의 학생들이 시위투쟁에 합세하였다. 시위학생들은 앞길을 가로막는 경찰들과 맞서싸우면서 《국회의사당 앞까지 진출하여 통성투쟁에 들어갔다. 분노의 합성 하늘을 찌르는 남달땀을 흘리고 세계적범위로 메아리쳐갔다.》

남조선군의 일부 병사들도 병영을 박차고 거리에 나와 시위군중의 편에 서서 시위

를 벌리었다. 4월인민봉기에는 남조선의 80여개 지역에서 청년학생들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녀성들, 소년들을 비롯하여 135만여명의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였으며 거기에는 300여개의 각급 학교들도 포함되었다.

인민들의 대중적인 봉기에 의해 마침내 독재의 아성은 무너지게 되었다. 외세의 주구가 되어 민족분열고정화를 위한 범죄적인 《단선단정》책동에 앞장서고 반통일파쇼악법인 《보안법》을 조작하여 자주와 민주, 통일을 외치는 의로운 인민들을 닦치는대로 탄압학살해온 리승만은 민심의 저주와 규탄속에 해외로 쫓겨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4월인민봉기는 외세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쇼통치를 밀부리쳐 뒤늦게 들어왔던 남달땀을 흘리고 세계적범위로 메아리쳐갔다. 남조선군의 일부 병사들도 병영을 박차고 거리에 나와 시위군중의 편에 서서 시위

를 벌리었다. 4월인민봉기에는 남조선의 80여개 지역에서 청년학생들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녀성들, 소년들을 비롯하여 135만여명의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였으며 거기에는 300여개의 각급 학교들도 포함되었다.

인민들의 대중적인 봉기에 의해 마침내 독재의 아성은 무너지게 되었다. 외세의 주구가 되어 민족분열고정화를 위한 범죄적인 《단선단정》책동에 앞장서고 반통일파쇼악법인 《보안법》을 조작하여 자주와 민주, 통일을 외치는 의로운 인민들을 닦치는대로 탄압학살해온 리승만은 민심의 저주와 규탄속에 해외로 쫓겨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본사기자 김영진



투쟁에 떨쳐나선 봉기군중들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주체81(1992)년 2월초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마주하시고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켜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조국통일도 남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룩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그거밖에 있던 남에 있던 해외에 있던 누구나 다 고려민족으로서의 넋을 지니고있기때문에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 민족이 수십여년동안이나 북과 남으로 갈라져 살았기때문에 민

족성이 이질화되었다고 하지만 괴물관계로 보나 미풍양속으로 보나 우리 인민의 민족성은 이질화되지 않았다고, 오늘이 음력설날이어서 그런지 서울시내에도 조선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계속되었다. 《고려민족의 넋을 지니고있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조선사람이라면 그거밖에 있던 남에 있던 해외에 있던 누구나 다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하며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나라가 통일되면 우리 민족은 더욱 존엄있고

힘있는 민족으로 될것이며 우리 나라의 찬란한 민족문화와 위대한 경제를 가진 자주독립국가로 세계에 빛을 뿌리게 될것이라고 하시었다.

계속하시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는 고려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켜 북과 남, 해외에 있는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함으로써 민족의 최대속원인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민족성인들이 지닌 사명감을 절절히 깨우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들으며 일군들은 민족대단결위업실현에 자기들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리라는 결의를 굳게 다지

본사기자

공화국의 품에 안겨

영화계의 보배로 내세워준 파사로운 은성

박병수, 그는 공화국에서 지난 세기 70년대 초 영화혁명의 불길인 타번질 때에 영화촬영에 한문한 재능있는 촬영가였다. 그가 살던 곳은 원래 남조선이었다.

1914년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그림그리기를 몹시 좋아했다. 하지만 완고한 아버지의 반대로 일본 와세다대학 정경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술에 대한 남다른 취향과 포부를 접을수 없었던 그는 어느 한 미술연구소에 들어가 직심스럽게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리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와서도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림그리기를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나라가 해방되자 그는 나름대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위해 미술재능을 키워낼 꿈을 안고 파수원을 팔아 동광미술연구소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에 괴물은 군화발을 들어놓은 외세의 폭압정치는 그의 소중한 꿈을 애초에 짓밟아버리었다.

박병수는 자기의 모든 정력과 재부를 깡그리 바쳐가며 전념하던 미술연구와 창작의 길이 이미 벼랑끝에 몰렸음을 절감하였지만 출로는 묘연하였다.

그러던 그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새 조국건설로 들끓는 북녘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당시 남조선에서는 유명인사들이 김정일장군님을 만나 뵈고 귀중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 앞을 다투어 북행길에 오르고있었다. 하지만 섣뜻 걸음을 북으로 옮길수 없

었다. 대지주의 아들인 자기를 북에서 어떻게 대해주겠는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그에게 인생전환의 행운이 차레지게 되었다. 1948년 7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어느 한 미술연구소에 들어가 직심스럽게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리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와서도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림그리기를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선거후 그는 자주의 넋이 살아있고 통일애국의 숨결이 드는 평양에 그대로 남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리라 결심하였다. 비록 남조선에는 자기의 이해와 자식들이 있었고 많은 재부도 있었지만 자기만을 위해 사는 안락한 삶이 아닌 민족을 위해 사는 값있는 생을 택했기에 공화국의 품에 용감 자기 운명을 맡기었던 것이다.

군로하는 인민이 땅과 공장, 나라의 주인이 되어 새 조국건설을 힘차게 떠밀어가는 광경은 그를 무한히 흥분시켰고 이 력사적인 장면들을 화면에 담고싶은 욕망이 끓어오르게 하였다. 하여 그는 환관유에 그림을 그리던 손에 촬영기를 잡았다.

영화촬영은 처음이었지만 그는 비상한 탐구와 열정을 바쳐 촬영기술을 익혀나갔고 마침내 예술영화 《용광로》의 첫 촬영을 맡아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는 영화촬영의 첫 발자국을 떼었다.

가렬철쟁던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는 중군촬영가가 되어 랑동강계선까지 달려나



박병수 선생

를 촬영하여 공화국의 영화예술발전에 기여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어 1960년대 초 우리 나라 영화촬영가들중에서 남먼저 공훈에술가칭호를 안겨주도록 하시었다. 국기훈장 제1급을 비롯한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니도록 하여주시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박병수는 자기의 수기에 이렇게 썼다.

《중국의 장물화는 행운이었다. 그는 우리 수령님 같은 인민의 영향을 받아 보람있는 삶을 살았다. 나는 늘 장물화가 부러웠다. 나도 수령님의 품을 찾아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이다. 그러나 나도 조선의 행운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렇듯 아버지수령님의 품속에서 평범한 촬영가였던 박병수는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촬영가로 성장하였다. 그의 삶의 자욱자욱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남다른 사랑도 뜨겁게 깃들었다.

전화의 나날 그가 촬영한 화면들이 기록영화 《진세계에 고향》(1950년)에 편집되었다.

전후에 그는 예술영화 《산매》와 《빨간 댕기》를 촬영하였다. 1960년대에는 《붉은 선동원》(1962년), 《백일홍》(1963년), 《대지의 아들》(1963-1964년), 《최하신의 일가》(1966년)를 비롯한 많은 예술영화들

을 억제하지 못하던 그는 의아하는 안해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발기에 의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는 창조사업이 시작되자 가장 우수한 창작가, 예술인들로 창작단성원들을 선발하는 사업이 진행되었다. 일군들은 심중경외로운 끝에 일제안과 과거경력을 고려해서 박병수를 보류하기로 하였다.

이 무렵 창작가, 예술인들의 사업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로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런 견해는 협어한것이라고 일깨워주시고 박병수동무는 재능있고 성실한 촬영가라고 하시면서 예술영화 《피바다》를 촬영한것을 보고 우리 나라에서 그를 따를만한 촬영가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자신께서 직접 그를 보증하겠다고 마다마디 뜨거운 은정을 담아서 하시었다.

1969년 어느날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촬영가로 일하던 박병수는 전에없이 명랑한 기분으로 집에 들어서며 큰소리로 안해를 불렀다. 《여보, 전에 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나를 보증해주셨소. ...백두산창작단 촬영가로 불러주셨단 말이요.》 흥분으로 끓어오르는 가슴

후에도 우리 나라 영화예술을 발전시키는 사업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었다고 격정에 겨워 말하였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해도 눈시울을 적시었다. 박병수가 창작성과를 거두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믿음과 세심한 지도의 결과였다. 그런데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 모든 공로를 고스란히 그에게 돌려주시는 것이었다.

박병수는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장군님의 믿음에 가슴이 충동할 일념으로 지혜와 열정을 영화촬영에 다 바쳤다.

그는 원래 말이 없고 딱한 성미였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친히 치료대책을 세워주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그의 병상대를 료해하시면서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그가 6개월동안 환자생활을 하였기때문에 사회보장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도 일군들에게 그러지 말고 직제를 그냥 두고 치료를 계속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다짐한 은정을 배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토록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술가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한껏 누릴수 있었다. 아끼고 내세워주던 영화촬영가가 끝내 숨을 거

두었다는 비보를 받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박병수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화한 예술영화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를 비롯한 수많은 영화들을 촬영한 공로있는 촬영가였다고, 정말 가까운 동무를 잃었다고, 우리는 그의 공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그때로부터 몇해가 지난 어느해 여름 한 예술작품을 지도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에 대해 또 다시 추억해주시었다. 주체73(1984)년 어느 한 나라에서 세계영화평원권람출판과 관련하여 공화국의 이름있는 영화예술인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에도 장군님께서서는 박병수를 잊지 않고 명단의 앞자리에 넣어주셨다.

그가 사망한 때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주체95(2006)년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영화예술부문에서 오래동안 일해온 창작가들과 배우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있다고 하시면서 박병수는 재능있는 영화촬영가였다고, 그는 미술에 조개가 깊었는대 촬영대본도 그림을 그려 줄군 하였다고 다시금 회고 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아껴주시고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뜨겁게 추억해주신 영화촬영가 박병수, 그는 영화의 장편마다에 가슴속을 꿰어넘치는 애국의 마음과 불멸의 영광을 안겨준 고마운 조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심은 성실한 인간이었다.

본사기자